

새봄... 토요일에 진도·목포가 봤나요

■ 진도 토요일경매·목포 토요일국악공연 현장

미술품 사고 공연 보고 문화체험까지

‘남도 토요일예술여행, 토요일이 즐겁다.’ 남도 땅은 때묻지 않은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천혜의 고장이다. 최근에는 다양한 문화상품들까지 아우러지면서 ‘문화 체험’도 각광을 받고 있다.

전남도가 지난달 28일 진도와 목포 지역의 문화상품을 하루에 둘러보는 코스 개발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투어 일정은 진도 윤림산방의 토요일경매, 울돌목 거북선 유람선 승선, 이순신 장군 벽화전 전직비와 용장산성 탐방, 전남도립국악단 토요일국악 공연을 관람하는 코스였다. 아름다운 풍광과 문화현장 등을 보유하고 있는 두 지역을 하루에 방문하기는 다소 빠듯했지만 하이라이프만 골라볼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전남도는 하나투어 등과 협약을 체결, 서울 등 타 지역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계획이다. 지역민들은 넉넉하게 시간을 잡고, 목포와 진도를 하루씩 둘러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진도 윤림산방 토요일경매시장
“자, 작품번호 1번 한명숙씨의 한국화 작품 경매 시작합니다. 시작 가격은 20만원부터입니다.”

소치 허련 일가가 예술혼이 깃든 진도 윤림산방에서 경매가 진행되자 경매 참가자들이 대부분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경매사를 주시했다. 이날 열린 제 131차 경매에서는 30여점 중 모두 11점이 주인을 찾았고 작품별 낙찰액은 5만원~65만원선, 총 낙찰액은 200만원이었다.

대부분 첫번째 호가에서 낙찰자가 결정돼 경매의 긴박감은 없었지만 작품을 구입

한 이들은 아주 만족스러워했다.

경매 전에는 ‘진도 아리랑’ 등 국악공연도 진행됐고 경매장 입구에 마련된 서예, 한국화, 문인화 체험 코너에서는 어린이들이 그림을 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전남도와 진도군이 지난 2005년부터 진행 중인 ‘남도예술여행 토요일경매’는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지금까지 7천여명이 참여했고 총 낙찰액은 1억 8천만원에 달한다. 올해는 작품 구입 예산을 지난해보다 4배 가량 늘어난 2억원을 책정, 토요일경매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림산방에는 불거리도 풍부하다. 400년 된 동백나무 등 자연풍광도 아름답고 소치 허련, 미산 허형, 남농 허견으로 이어지는 한국 남종화 대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실도 갖춰져 있다. 또 토요일경매시장에서는 진도 특산물 등 다양한 물품을 구입할 수도 있다.

민속음악의 보고(寶庫)인 진도에서도 국악공연을 만날 수 있다. 오는 4월부터 매주 토요일에는 진도군립예술단이 씨갭굿, 진도 북춤 등의 공연을 진행한다. www.nart-bank.co.kr

▲전남도립국악단 목포 토요일공연
진도 일정이 다소 빠듯했던 터라 공연 관람을 위해 목포로 이동했을 때는 조금씩 지쳐 있었다. 하지만 목포시민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전남도립국악단(상임지휘자 김만석)의 토요일공연은 피로를 날려주는 청량제였다.

이날 공연의 주제는 ‘국악 크로스오버, 난장, 퓨전 콘서트’. 대금과 가야금 듀엣곡, 25



매주 토요일 진도와 목포에 가던 경매와 국악공연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다. 진도 윤림산방에서 열리는 ‘토요일경매(사진 위)와 전남도립국악단의 토요일공연 모습.

현 가야금으로 듣는 비틀즈의 노래, 타악과 국악관현악의 어울림, 마당창극 ‘흥보가’ 등이 공연됐고 400여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색다른 국악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다.

전남도립국악단은 지난 2006년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다양한 레퍼토리로 관객들을 만나고 있다. 3개월 단위로 프로그램을 예고하고 있어 보고 싶은 공연이 열릴 때 목포 나들이를 떠나면 좋을 듯하다.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남부미술관, 유달산 조각공원 등을 함께 둘러보면 근사한 문화여행으로 손색이 없다. www.jpg.org. 문의 061-375-6928. /목포·진도=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인터넷 서점서 중고책 사볼까

인터넷 ‘헌책방’·알라딘 ‘중고샵’ 운영

50%까지 할인 판매...거래 건수도 급증

새 책을 팔던 인터넷 서점들이 속속 중고책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인터넷서점 인터파크INT도서는 최근 중고책을 사고팔 수 있는 ‘헌책방’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앞서 인터넷서점 알라딘은 인터넷서점으로는 최초로 온라인에서 중고책을 거래할 수 있는 ‘중고샵’ 서비스를 지난 2월 시작했다. 온·오프라인 서점 리브로는 오프라인 매장에 이어 온라인에서도 중고책을 사고파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인터넷 서점들이 중고책 시장에 눈을 돌리는 것은 경기 불황에 얼어붙은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것이다.

알라딘의 경우 지난해 서비스 시작 직후 2만3천여건이던 월 거래 건수가 지난 1월에는 4만8천여건에 달하며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거래 건수는 특히 경기

불황 우려가 본격화된 지난해 9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지난해 12월 거래건수가 9월 대비 32%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올해 2월 거래량도 전달 대비 10% 정도 상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고 거래 책 중에는 참고서와 수험서, 유아·어린이·청소년 도서가 전체 거래량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뒤늦게 뛰어든 후발주자들은 차별화된 전략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인터파크도서는 새책 수준의 방납판매 및 매장판매용 전집을 확보해 판매하고 있으며 중고 책을 새 책과 함께 살 경우 무료 배송해주고 있다.

또 일종의 숃핀숍(Shop in Shop) 형태로 중고책을 판매하는 리브로는 모든 도서를 50% 할인하고 판매되지 않고 남은 도서는 2천원 정도의 균일가로 일괄 판매한다는 전략이다. /연합뉴스



구자범씨 광주시향 지휘봉 잡는다

광주시, 오늘 위촉장

세계적인 지휘자 구자범(39·사진)씨가 광주시립교향악단의 새로운 수장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광주시는 1일자로 구씨를 광주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로 위촉하고, 2일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연세대 철학과를 졸업한 구씨는 독일 만하임 음대 지휘과를 수석졸업했으며 하겐 시립교향악과 다름슈타트 국립극장 지휘자로 활동했다. 특히 하노버 국립극장 수석 지휘자로 활동하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광주시향 상임 지휘자는 낮은 연봉과 열악한 근무 조건 등으로 1년 넘게 공석이었던 자리. 구씨에 이어 구 씨에게 연봉 10만달러를 지급키로 계약했다.

구 씨는 오는 4월 정기공연 때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으로 광주시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화가 조강수 ‘보통사람’展

4~10일 광주 자리아트갤러리

한국화가 조강수씨가 오는 4~10일까지 광주시 동구 동 자리아트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조씨는 이번 전시에서 ‘보통사람’을 주제로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인물의 모습을 선보인다.

보통사람은 얼굴이 잘생기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사람이다. 조씨는 보통사람의 이 같은 익명성을 흐릿한 이목구비로 표현했다. 언뜻 보기에는 누군지 모르지만, 편안한 느낌을 주는 보통사람들의 따뜻한 형상을 담고 있다.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한국화과를 나온 뒤 동대학원 미술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조씨는 4차례의 개인전과 다수



‘보통사람’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광주시미술대전, 무등미술대전 등에서 상을 받았다. 문의 062-225-4003.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정율성 예술가곡 나왔다

광주 출신 음악가 정율성의 대표가곡을 모은 ‘정율성 예술가곡’이 나왔다. 광주정율성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가 제작한 이번 음반에는 ‘땀땀’, ‘물길에 내 마음을 싣고’, ‘매화를 읊노라’, ‘아 수려한 풍광이여’ 등 정 씨의 대표작 15곡이 실렸다.

음반에는 소프라노 박계·김선희·진귀옥·신애경·김은주, 테너 김백호·김홍태, 바리톤 최종우·장유상, 베이스 권순동씨 등이 참여했으며 피아노 반주는 제갈소망·이지현·나원진씨가 맡았다. 마지막곡으로는 정 씨의 대표곡인 ‘망부운’ 서곡을 광주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실었다.

정 씨의 대표작 15곡이 실렸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작가가 뽑은 좋은 소설’

소설가 김연수씨 석권

소설가 김연수(39·사진)씨가 도서출판 작가 주관 문인, 출판인이 선정한 좋은 단편 소설과 좋은 작품집(단행본)에 동시에 이름을 올렸다.

소설가, 시인, 문학평론가와 출판 관계자



등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발표된 좋은 소설 설문결과와 김씨의 단편소설 ‘케이케이의 이름 불렀어’가 총 19회 추천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또 작품집 중에서도 김씨의 장편소설 ‘밤은 노래한다’가 가장 많은 16회의 추천을 받았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영화안내 인기영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메가박스 구.원전국악사거리 ☞ 1544-0600

1관	벤지민버논의시간은거꾸로간다 (12세) 최고등급
2관	작전 (18세)
3관	말리와나 (12세)/구세주2 (15세)
4관	그는당신에게반하지않았다 (15세)
5관	핸드폰 (18세)
6관	문프린세스(전세)/별레임-인류멸망2011 (12세)
7관	언데드 (15세)
8관	위당소리 (전세)
9관	인터내셔널 (18세)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엔터 시네마 흥정로 5가 (전화예약) 228-2700

1관	구세주2 (15세)
2관	마린보이 (15세)
3관	문프린세스-문에이커비밀(전세)
4관	작전명탐카라(12세)/유감스러운도시(15세)
5관	작전 (18세)
6관	데스페로(전세)/체인질링(18세)
7관	적벽대전2-최후의결전 (15세)

www.entercinema.co.kr
• 넓고 편안한 좌석의 주차장 300대 • **금로** 살아생전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점빌딩 4층) 하남점 (무역회관빌딩)

1관	핸드폰 (18세)
2관	과속스캔들(12세)/그는당신에게반하지않았다(15세)
3관	벤지민버논의시간은거꾸로간다(12세)/원곡(18세)
4관	벤지민버논의시간은거꾸로간다 (12세)
5관	데스페로(전세)/말리와나(12세)
6관	구세주2 (15세)
7관	문프린세스(전세)/작전 (18세)
8관	블레이드-인류멸망 2011 (12세)
9관	작전 (18세)
10관	인터내셔널 (18세)

• 초남 최대 주차장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콜롬버스 하남점 (10개관) **정원리 상영중**
1588-7941 상영시간표 받기
-관객-행-편-

씨너스 전대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1관	구세주2 (15세)
2관	핸드폰 (18세)
3관	벤지민버논의시간은거꾸로간다 (12세)
4관	말리와나 (12세)/언데드 (15세)
5관	그는당신에게반하지않았다(15세)/문프린세스(전세)
6관	작전 (18세)
7관	위당소리 (전세)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ARS 전화예매 1544-0070

하미 시네마 전대후문 하이포박스 ☞ 267-7777

1관	마린보이(15세)/그는당신에게반하지않았다(15세)
2관	문프린세스 (전세)
3관	말리와나(12세)/적벽대전2(15세)
4관	위당소리 (전세)
5관	구세주2 (15세)
6관	과속스캔들 (12세)
7관	블레이드-인류멸망 (12세)
8관	핸드폰 (18세)
9관	벤지민버논의시간은거꾸로간다 (12세)
10관	작전 (18세)

• 500여대 넓은 주차장(3시간무료) • 385 매일심야
• 이동통신사 & OK 캐시백 카드 할인 혜택
• 하미 수령점 288-5757 • 하미 북령점 282-0825
• 하미 골프점 251-5060 • 하미 당구점

제일 시네마 흥정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1관	핸드폰 (18세)
2관	언데드 (18세)
3관	작전 (18세)
4관	구세주2 (15세)
5관	벤지민버논의시간은거꾸로간다 (12세)
6관	그는당신에게반하지않았다 (15세)/마린보이(15세)/말리와나(12세)

• 무료주차 3시간 (종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227-1960

